

YOUN Jiyoung



YOUN Jiyoung is a contemporary artist whose work explores themes of identity, memory, and the human condition. Her art often features symbolic objects and figures, such as the large red spheres on stands and the white winged figure seen in her installation. She is known for her intricate and thought-provoking compos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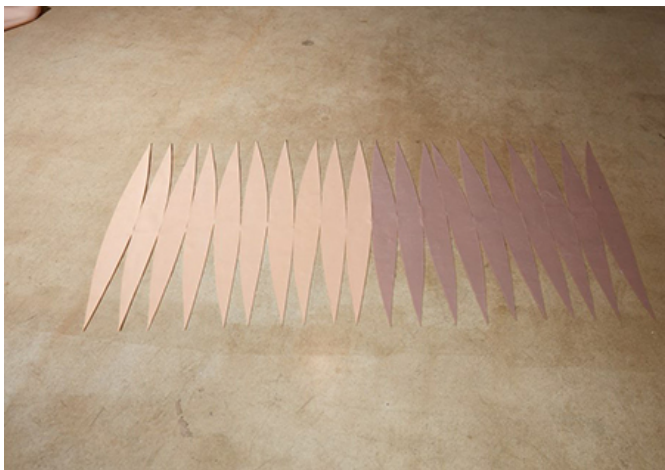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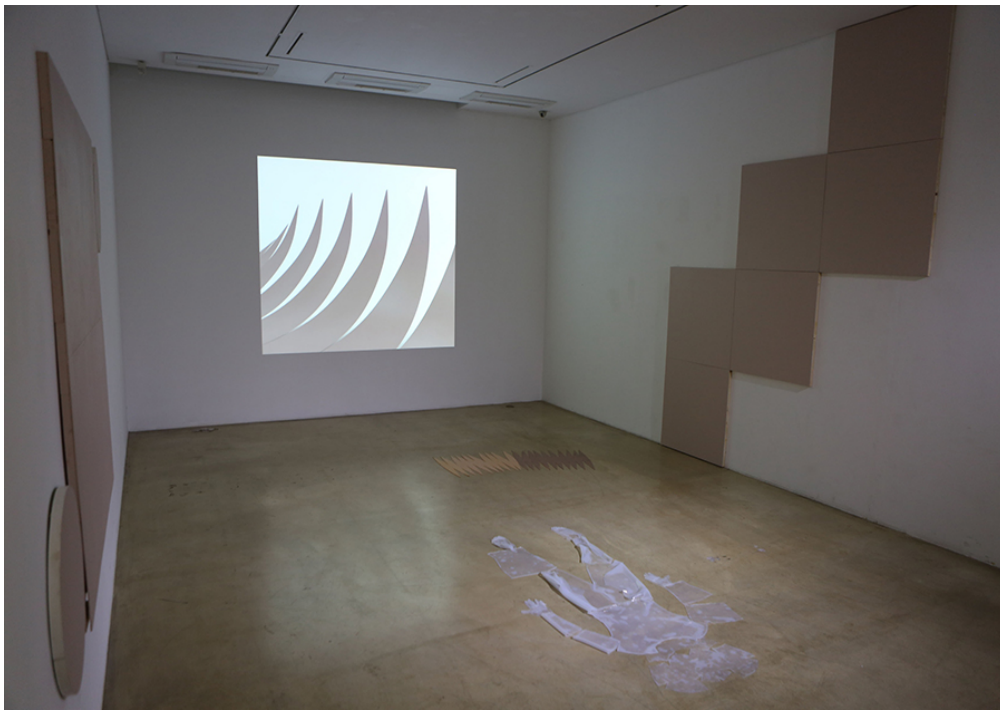


tattoists, 170x221x166cm, 230x60x60cm (3pcs), mixed media, **tattoists:**
 BAKA, Ida, Sunjae, 2019
 (Installation view)

Q&A

Q. What is the concept behind your artwork 'tattoists'?

A. The concept of 'tattoists' is centered on the idea of shared human experiences and the search for meaning. The large red spheres, which resemble globes or planets, symbolize our interconnected world and the universal nature of our struggles. The white winged figure, reminiscent of a cherub or a messenger, represents the human spirit's quest for transcendence and understanding. The scattered objects on the floor, including the small spheres and the dark cylindrical form, further emphasize the fragmented and often chaotic nature of our lives. Through these elements, I aim to provoke thought and reflection on our place in the world and the shared humanity that binds us all.



이 작품은 **구(No Planar Figure of Sphere)** (구, 2018)이다.

Q. 이 작품은 구(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A. 이 작품은 '구(구)를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 구(구)는 평면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3차원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구(구)를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구(구)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 작품은 구(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구)의 본질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이 사진은 2013년 10월 34일 촬영된 것으로, 'Blowfish-like'라는 제목을 가진 사진이다. 이 사진은 숲속에서 한 사람이 등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사람은 등산복을 입고 등산 가방을 메고 있으며, 숲속의 나무와 햇빛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Blowfish-like, 2013년 10월 34일. 사진: [이름], 2013

Q. 이 사진은 어떤 장소에서 촬영된 것인가요?

A. 이 사진은 'Blowfish-like'라는 제목을 가진 사진으로, 'Blowfish-like'라는 제목을 가진 사진이다. 이 사진은 숲속에서 한 사람이 등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사람은 등산복을 입고 등산 가방을 메고 있으며, 숲속의 나무와 햇빛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Regardless (Regardless), 40 330, 300 000 00, 000, 2018

Q. 00, 000 0000 000 000

A. 00 0 00 00 0000000 '00 0000 00 000 00, 00 0'0 000 0000 0000 00 0000 0000. 000 00 0 0000 0000. 0 000 0000 000 000 0000 0000 0 00 0000 00, 000 000 0 00 0000 0000.





이영준(Seeing things the Way We See the Moon), 2014, 45cm, 캔버스, 2013-2014

Q. 이영준의 작품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A.



출처 : jiyoungyun.com